

/지역 단신/

곡성 태안사 전물경찰관 위령제



제 56주기 태안사 작전 전물경찰관 위령제가 지난 4일 곡성군 곡곡면 원달리 태안사 경찰 충혼탑에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 유가족, 참전 동지회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남하하는 북한군과 교전하다 곡성 태안사에서 장렬히 산화한 희생 경찰관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이별 위령제는 현화 및 분향, 곡성중학교 합창단의 '태안사의 밤'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별 행사에는 곡성교육청 주관 곡성군 초·중 등학생들의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가 경찰 충혼탑 일대에서 열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호국 정신을 고취시키는 뜻 깊은 행사가 됐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무안 간이 승강장 40곳 설치

무안군이 군내버스와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간이 승강장'이 주



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무안군은 올해 3억여원의 시설비를 들여 관내 버스가 다니는 도로변 40곳에 의자와 군내 관광지·기업도시 등 홍보 게시판을 부착한 간이 승강장을 설치했다.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경보 표시판을 지붕에 부착, 야간에 도식별이 가능토록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내 전 지역의 낡고 보기 흉한 간이 승강장과 표시판을 최신 시설로 교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화장동~덕양진입로 조기 완공

여수산단 진출입로 체증 해소책 마련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출입도로에 대한 교통 체증 해소 대책이 마련된다.

여수시는 6일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출입 도로 출·퇴근 시간대의 심각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화장동에서 국도 17호선 연결 도로인 여수산단 진입도로 공사 구간인 덕양 진입로까지 1.7km를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여천동 무선지구에서 여천초등학교 구간의 1.06km 도로 개설 공사로 2009년 개통을 목표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수산단 진·출입시 대중교통 이용과 회사통근버스, 자가용운행 자제와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는 등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동 시청방에서 석창사거리 교차로에 산단 진입 고가 육교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 장기적인 교통 소통에 역할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앞으로 여수산단 진입도로 등이 완공되면 여수산단 진·출입 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광양 '최초 교회' 다툼 뜨겁다

시 '유적지 명소화' 진상면 공동교회 일대 '기념관' 추진 신학교회 "우리가 1년 앞서 설립... 검찰에 고소할 것"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독교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성지로 선정된 진상면 공동지역이 적절하지' 여부를 놓고 상호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어 최근엔 '교회역사 왜곡'을 둘러싼 고발전으로까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광양시는 '기독교 유적지 관광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국·도비 39억7천만원을 투입, 오는 2008년까지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공동교회와 그 일대에 '신교 100주년 순교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동교회 인근에 위치한 '신항 교회'측이 "예장 기록에 따르면 신항교회가 공동교회보다 1년 앞선 1907년에 설립된 만큼 광양지역 기독교

최초 전래지는 신항교회라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위원회(위원장 이용훈목사·인천 빛사랑교회)측은 그러나 "순천노회의 기록은 1904년 공동마을에서 최초로 예배를 본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공동지역 일대를 유적지로 선정한 것은 관공·문화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항교회 최수남 목사는 "순천노회는 조작된 것이며, 광양시가 사업위원회와 협의해 일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사업위원회측에서 우리(신항교회)가 더 이상 성역화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양보하는 대가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역사위원장 자리를 제의했다고 폭로했다.

최목사는 또 "사업위원회에서 (자신을) 역사왜곡 등으로 순천노회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사업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양시의회는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1일, 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 사업위원회와 신항교회가 한발씩 양보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석우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은 지난 2일 광양시청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신항교회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사업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면서 "몇십 년 후에 수몰될지도 모르는 지역에 거액을 투자할 수 없으며, 주체가 (광양시)가 위치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밝혀 신항교회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양=김충호기자 chkim@



민어경매

5일 오전 신안군 지도읍 신안수협 송도위판장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민어가 경매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민어 대풍... 1척당 하루 300만원 어획고

최근 신안군 해역에서 여름철 고급 어종인 민어의 어획량이 크게 늘어, 어민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수협과 민어잡이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인근해역을 비롯 비금 원령, 자은면 백산리, 증도면 우전리, 임자면 전장포 연안해역에 민어어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10kg 연안자망 50여척이 출어해 한척 당 3~10kg크기의 민어를 5~8마리씩, 무게는 17마리까지 잡고 있다.

민어 풍어는 신안 연근해 해역의 수온이 서식 적정온도인 18~23℃인

신안 비금·증도·자은면
알맞은 수온·먹이 풍부
위판가 kg당 2만2천원선

데다, 민어의 주 먹이사슬인 새우와 소형 어류가 많기 때문에 풀이되고 있다.

어민들은 7월 한달동안 17.6t(398천850만원)의 민어를 수협을 통해 위판, 한 척당 하루에 250만~350만원까지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수협위판 단가는 지난해 kg당 평균

2만7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민어의 품어로 kg당 2만2천원으로 5천원이 내린 상태다. 그러나 지도읍 송도 위판장과 임자면 전장포 등지에서 새벽부터 줄을 이는 외지 피서객들을 상대로 kg당 평균 2만8천원~3만원선에 팔리고 있다.

지난해 민어잡이 어민들은 130여t의 민어를 잡아 수협위판을 거쳐 30여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비금, 증도, 자은, 임자면 등 현지에서 소비자들과 직거래로 20억원(90t)의 판매 소득을 올렸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순천만 갈대밭 유료화 논란

시의회, 보행로 입장료 1인당 1천원 징수 추진

시민들 "탐조 코스 등 없어 시설보완 선행부터"

순천시의회가 순천만 갈대밭 보행로(관찰데크)에 대해 입장료 징수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말 임시회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민들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가 유보됐다. 의회가 보행로 입장료 징수를 추진한 것은 최근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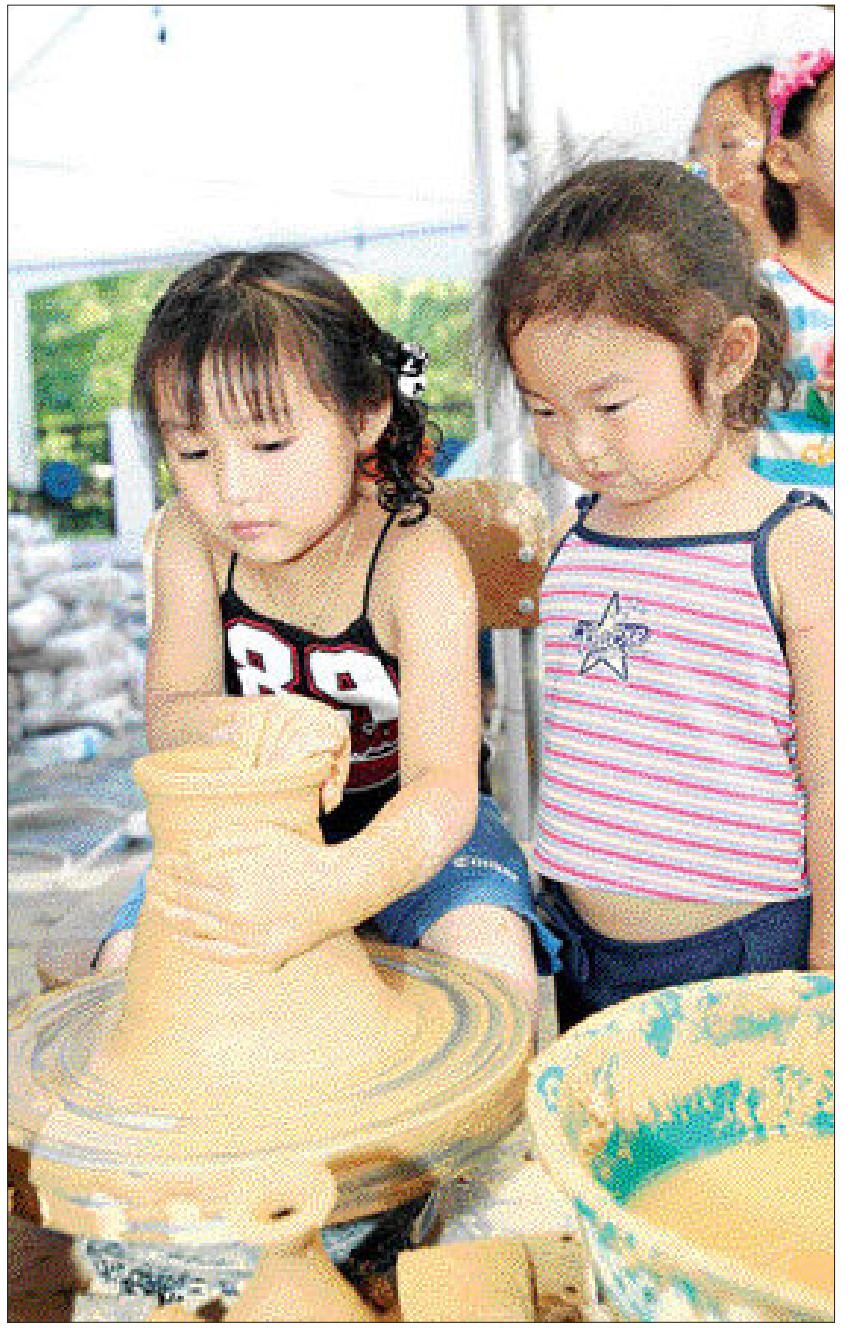
늘어나면서 쓰레기 투기 등 주변 환경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입장료를 징수,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관리인력을 충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순천만자연생태관 입장객의 경우 갈대밭 보행로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관광객에 대해서는 성인 1인 기준 1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청소년과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별한 탐조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 보행로에 대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달 중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완공 이후 유료화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관찰데크를 더 연장하거나 탐조 코스 개발 등 다른 시설을 마련한 뒤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이렇게 빚는거야

물레 앞에 앉아 제법 그럴듯한 품으로 즐겁게 도자기 빚기체험을 하고 있는 귀여운 소녀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강진군 고려청자사업소가 연중 운영하고 있는 상설 체험장에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고수온기 새우 양식장

바이러스 피해 철저관리

고수온기에 접어들면서 새우양식장의 바이러스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고수온기에

접어들면서 암모니아농도 증가와 플랑크톤의 대량번식, 비브리오 등 질병발생으로 새우폐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목포해수청은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양식장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먹이 과다투여로 잔유물이 사육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정남진 장흥농협을 배우자

합병 6개월만에 연체대출 15%로

카드사업 부문은 전국 1위

정남진 장흥농협(조합장 고희천)이 합병 6개월 만에 '특별관리' 조합에서 전국 최고 조합으로 거듭났다.

특히 카드사업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무료 수지침 치료 및 한방진료 등 조합원 복지와 영농비절감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합병협업의 성공 사례를 남겼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천300여개 조합을 도시형, 농촌형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농촌형 3그룹에는 전국 83개 조합이 속해 있다.

정남진 농협은 6월말 업적평가에서 연체대출 비율을 지난해 12월 말 합병당시 25%에서 15%대로 줄이고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순자본 비율을 3%에서 5.3% 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사업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무료 수지침 치료 및 한방진료 등 조합원 복지와 영농비절감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합병협업의 성공 사례를 남겼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공무원 인사 앞두고 출서기·악성루머



○"합평군 일부 공무원들이 이달 중 실시될 대규모 승진 인사

를 앞두고 '실세 인맥'을 찾아 공공연히 출서기에 나서는가 하면 군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등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면서 청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여론이 파다.

○"사무관 3명과 계장 6명의 승진을 포함, 모처럼 큰 폭으로 실시되는 이번 인사에서 몇몇 승진 후보들이 인사권자

를 상대로 각종 음모작전을 펼치고, 단 체장 주변 인맥까지 동원해 출대기를 서슴지 않고있는데다 최근엔 경쟁상대에 대한 각종 악성 루머까지 흘러고 있어 심각한 인사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 것.

○"군의 한 공무원은 "사무관 승진이냐 오직을 탐내는 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자신의 평소 업무수행능력, 군정기여도, 전문성 등을 뒤 돌아보고, 군 발전과 대민 봉사에 충실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자 리다툼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일침.

/함평=박영진기자 py4079@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뒤는 그대로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신선한 고급재료, 정갈한 음식맛

금수향 관광호텔 이리향하우스